

SPORTS ‘연패 탈출’ 시페퍼스, 창단 첫 전 구단 상대 승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흥국생명 세트스코어 3-2 리버스 스윕 박정아 26득점·테일러 23득점 등 맹활약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창단 첫 전 구단 상대 승리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AI페퍼스는 11일 광주페퍼스타체육관(영주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 배구단과의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2(15-26 14-25 25-20 27-25 15-12)로 리버스 스윕을 거뒀다. 앞서 4연패를 당했던 AI페퍼스는 이날 승리로 11승 23패 승점 35를 기록, 구단 역대 최초 두 자릿수 승수의 숫자를 더 늘렸다. 이로써 리그 7위 GS칼텍스(10승 23패·승점 32)와의 격차도 벌었다.

특히 올해 흥국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구단에게 모두 승리를 거뒀던 AI페퍼스는 이날 전 구단 상대 승리 또한 달성했다. 이는 창단 이후 최초의 기록이다. AI페퍼스는 이제 V리그 종료 전 남은 2경기에서 더 높은 곳으로 향한다.

이날 AI페퍼스는 박정아가 팀 최다득점인 26득점(공격성공률 44%)을 올렸고, 테일러는 23득점(공격성공률 39.3%)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책임졌다. 이에리파와 장위 역시 각각 9득점, 6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장소연 감독은 이날 주장 박정아와 이한비(아웃사이드 히터), 테일러(아포짓 스파이커), 장위·하

해진(미들블로커), 이원정(세터), 한다혜(리베로)와 함께 경기를 시작했다.

1세트는 흥국생명의 차지였다. 챔프전 진출을 확정 지은 흥국생명은 김연경을 제외한 김수지와 투트쿠, 정윤주, 최은지, 이고은, 피치, 신연경 등 주축 선수들을 대거 출전시켰다.

AI페퍼스는 경기 초반 4-10으로 끌려갔다. 이후 박정아와 테일러를 앞세워 10-12까지 추격했지만, 연달아 5점을 내주면서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

15-22 상황 상대 투트쿠와 정윤주가 연달아 오픈을 적중시키면서 15-25로 첫 세트가 끝이 났다.

2세트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흥국생명은 피치와 정윤주, 최은지만 남겨둔 채 임혜림, 문지윤 등 로테이션을 가동했다. 그럼에도 경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3-7까지 격차가 벌어졌던 2세트 초반, AI페퍼스가 상대의 연속 범실로 7-8까지 쫓아갔다. 하지만 상대 최은지의 서브에이스, 정윤주의 오픈 등으로 8-13까지 밀려났다. 이후 장위가 연속 이득 공격으로 점수를 추가했지만, 경기를 뒤집지 못하고 14-25로 2세트를 내줬다.

AI페퍼스는 3세트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3세트 초반 시소게임을 이어가던 양팀은 12-12 상



11일 광주페퍼스타체육관(영주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 배구단과의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경기에서 승리한 AI페퍼스 선수단이 기뻐하고 있다.

황 AI페퍼스가 5연속 득점에 성공, 17-12로 리드를 가져왔다. 이어 박정아의 오픈과 블로킹, 이에리파의 퀵오픈이 적중하면서 25-20으로 3세트를 따냈다.

4세트 또한 AI페퍼스가 웃었다.

19-18까지 치열한 접전이 이어졌다. 이후 5연속

실점으로 세트를 내주는 듯했지만, 24-24 듀스를 만들었다. AI페퍼스는 상대 문지윤의 퀵오픈으로 매치 포인트 위기를 맞았지만 박정아의 연속 득점과 상대 범실로 27-25 재역전했다.

마지막 5세트 또한 AI페퍼스가 주도했다.

3-2에서 4연속 득점으로 7-2까지 격차를 벌렸다. 경기 중반 12-11까지 좁혀졌지만, 박정아의 오픈과 장위의 블로킹으로 매치 포인트를 따냈다. 이후 상대에게 한 점을 내줬으나, 테일러의 백어택으로 경기는 끝이 났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2025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겸 국가대표 2차선발전’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한 광주교동공사 유도팀.



여자부 -63kg급에서 우승을 차지한 신채원(왼쪽)과 김양호 순천시청 유도팀 감독.

광주·전남 유도, 회장기 대회서 나란히 태극마크 획득

광주교동공사 김민주, -78kg급 우승...김혜미 ‘금’ 순천시청 신채원, -63kg급 정상...국가대표 승선

광주·전남 유도가 ‘2025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겸 국가대표 2차선발전’에서 나란히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김민주(광주교동공사)는 지난 10~11일 충남 보령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78kg급 결승에서 김주윤(동해시청)을 인턴촉격기 한판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 11월 회장기 겸 국가대표 1차 선발전 1위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김민주는 국가대표로 선발돼 5월 세계선수권대회와 6월 유니버시아드대회 출전을 확정지었다.

이번 대회 16강전 부전승으로 8강에 진출한 김민주는 강경민(인천시청)을 상대로 윙누르기 한 판승을 거뒀다. 이어 준결승전에서는 이정윤(고

창군청)에게 반칙승(지도 3개)를 따내면서 결승에 올랐고, 김주윤을 제압하며 정상에 올랐다.

여자일반부 -70kg급에 출전한 김혜미(광주교동공사) 역시 금메달을 들어 올렸다.

김혜미는 대회 32강에서 박세은(제주특별자치도)에 업어치기되치기 한판승, 16강에서 모수빈(한국체대)에 반칙승(지도 3개), 8강에서 이에원(부산 북구청)에 업어치기 유효승을 거두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이에람(한국체대)을 상대로 허리후리기 유효승을 거두면서 1위를 차지했다.

같은 팀 황수련은 여자일반부 -52kg급 준결승에서 김민정(경기대)에 업어치기 유효패를 당하며 동메달에 만족했다. 이주연도 여자일반

부 -63kg급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로써 광주교동공사는 금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로 이번 대회를 마쳤다.

전남에서는 신채원(순천시청)이 여자일반부 -63kg급 결승에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신채원은 16강전에서 김예지(한국체대)에 반칙승, 8강전에서 고은아(용인대)에 지도승을 거두며 준결승에 이름을 올렸다. 준결승에서는 이주연(광주교동공사)에게 허리후리기 절반승을 거뒀다. 마지막 결승전에서 신채원은 지난 1차 국가대표 선발전 결승에서 석패했던 허슬미(안산시청)에게 허리제기 유효승을 따내면서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신채원은 1차 선발전에서 2위, 2차 선발전에서 1위를 각각 차지하며 2025년 국가대표로 최종 발탁되는 영예를 안았다. 신채원 역시 올해 열리는 유니버시아드대회와 세계선수권에 출전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이동국, 축구 비즈니스 전문가로 새 도전

스포츠 비즈니스 기업 브리온컴퍼니 사외이사로 합류

전 축구 국가대표 이동국(45)이 축구 비즈니스 전문가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스포츠 비즈니스 기업 브리온컴퍼니는 12일 이동국이 사외이사로 합류했다고 알렸다.

이 “이동국은 오랜 세월 축구 선수 및 지도자로 활동하며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우리의 새로운 축구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브리온컴퍼니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기존 스포츠 및 e스포츠 사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스포츠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임우택 브리온컴퍼니 대표는 “이동국 이사의 합류는 우리의 축구 비즈니스 확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국은 “브리온컴퍼니와 함께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돼 기대가 크다”면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브리온컴퍼니 사외이사로 합류한 이동국(오른쪽). 연합뉴스

이동국은 프로축구 K리그에서 통산 최다 우승(8회)을 경험했으며 548경기에서 228골 77도움을 기록해 통산 득점 1위, 도움 2위, 공격 포인트 1위 등에 올라 있는 전설적인 선수다.

그의 등번호 20은 소속팀이었던 전북 현대의 영구 결번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슈퍼스타’ KIA 김도영 MVP 기념 화보집 발간

더 맨·더 보이 2권...세트 5만8000원

2024 KBO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슈퍼스타’ KIA 타이거즈 김도영의 활약상이 담긴 화보집이 나왔다.

김도영의 에이전시 MVP스포츠는 12일 “김도영의 2024시즌 활약을 팬들과 함께 추억하고자, 화보 스토리북 ‘더 영 킹’ (The Young King)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화보 스토리북은 ‘더 맨’ (The Man)과 ‘더 보이’ (The Boy). 두 권으로 구성했다.

각 2권과 이를 하나의 세트로 묶은 3개의 버전으로 판매한다. 한 권의 가격은 각 2만9000원, 세트는 5만8000원이다.

MVP스포츠는 “팬소 도움이 필요한 어린 생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온 김도영의 뜻과 화보



2024시즌 KBO리그 MVP를 수상한 김도영의 일상을 담은 화보 스토리북. 사진제공=MVP스포츠

제작의 취지에 따라 판매 수익금 중 상당액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내일 개막...올림픽 티켓 경쟁

박지원, 반칙 약동 딛고 금메달 겨냥...최민정·김길리 선의의 대결

2024-2025 최고의 쇼트트랙 선수를 가리는 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가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고 국내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남녀 각 1명을 차기 시즌 국가대표로 자동 선발한다.

차기 시즌엔 2026 밀라노-코르티나남매초 동계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한국 선수들에게 사실상 올림픽 1차 선발전과 다름없다.

대표팀 선수들은 외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국내 선수들과도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엔 남자부 박지원, 이정수(이상 서울시청), 김건우(스포츠투토), 장성우, 서이라(이상 화성시청)가 출전한다.

여자부는 최민정, 김길리, 김건희(이상 성남시청), 노도희(화성시청), 이소연(스포츠투토)이 경쟁한다.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자격은 있지만, 출전을 포기한 선수들도 있다.

남자부 김태성(화성시청)과 박장혁(스포츠투토), 여자부 심석희(서울시청)는 출전하지 않는다.

이들은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국가대표 1, 2차 선발전에 조정을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남자대표팀 간판 박지원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의 약동을 지우고 올림픽 티켓 획득에 도전한다.

2022-2023시즌과 2023-2024시즌 세계랭킹 종합 1위를 차지했던 박지원은 2024-2025시즌 국가대표 자동선발전이 끝났던 2024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대표팀 후보 황대현(강원도청)에게 잇따라 반칙을 당해 태극마크 자동 획득에 실패했다.

당시 박지원은 남자 1000m와 남자 1500m결승에서 황대현의 반칙으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금메달을 따지 못한 박지원은 국내 선발전에 출전해야 했고, 우여곡절 끝에 태극마크를 유지했다.

박지원은 2023 세계선수권대회(금메달 2개, 동메달 1개)에 이어 2년 만에 금빛 질주를 노린다.

여자부는 절친한 선배인 최민정, 김길리의 경쟁에 눈길이 쏠린다.

두 선수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세계 최고의 스케이터다.

최민정은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따 뒀던 한 시즌 동안 휴식을 취했고, 그 사이 김길리가 대표팀 에이스로 떠올라 국제무대를 평정했다.

김길리는 2023-2024시즌 세계랭킹 종합 1위에 올랐고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선 여자 1500m 금메달과 여자 1000m 은메달을 획득하며 국가대표로 자동 선발됐다.

연합뉴스